

2008년 8월 26일 화 말씀

해외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봤으니까 본인들이 다시 해외로 들어가야 할지 나와야 할지 알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워서 통역관을 할 것인지 외국에서 선교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딱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정을 안 하면 하루 만에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 선교를 하려면 외국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10년 동안 있어보니까 잘 못하면 굉장히 필요 없는 시간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저울에 달아보면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나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 협조해줘야 될 교회가 있으면 협조 해줬지만 필요 없는 것은 시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니다. 사람이 자기 갈 길만 꼭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간 뺏기면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지를 못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해나가야 합니다. 통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갈 때 처음에 통역관 없어서 그냥 갔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다 길러놓으셨습니다. 15년씩 길러서 키워놓으셨습니다. 15년 정도는 해외에서 있어야 80%정도 통역을 합니다. 독일은 통역관들이 이미 가서 결혼해서 배워놓고 있어서 양쪽나라 말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각 나라에 다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 다 합쳐서 한 70-80명씩 있습니다. 중국 갔을 때도 ‘아~ 어떡하지, 내가 배워야 하나?’ 했는데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통역 공부 하려는 가지 말고, 선교적인 것은 그 쪽 나라를 잘 봐서 도움이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일을 하십시오. 한국이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엄청 납니다.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확 늘어났습니다. 교회 수 십 개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애들 하나씩 만 데리고 와도 수만 명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수 만 명은 아니지만 수 천 명씩은 데리고 오니까 잘 감당해서 잘 길러야 합니다. 지도자는 고생해도 심각하게 잘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나도 그전에 나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나고 그렇게 물어도 한 번도 안 가르쳐주셨습니다.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니다. 이렇게 일 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니다. 그래서 ‘농사짓고 살까? 뭐하면 살아야 하나.’ 하면서 맨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농사도 자신이 없고 장사도 돈이 없으니 자신이 없고 결국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시지 않으십니다. 미리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영웅열사도 다 그렇습니니다. 현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씩 조금씩 인도해주십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어떤 나라는 내가 선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니다. 내가 보는 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받습니니다. 올림픽경기 할 때 엄청나게 환호하고 그랬는데 나는 보는 것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깊이 기도했습니다. 소경이 너무 묘기를 잘 부리니까 사람들이 혼동한 것입니다. 잘 못하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합니다. 그것 만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외줄타기만 연습해서 그것만 잘 하는 것처럼. 그런 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합니다. 참 정확하고 무섭게 평가 하십니다.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온 것입니다. 나는 웬만하면 파고들어갑니다. 가시덤불이고 어디고간에. 그런데 5년 동안 보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철수하니까 이제 다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와서 남은 일을 해나갔습니니다. 나는 어디서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 숨어서도 세계를 다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으니까 깊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들어가고 잘 데 없어서 굴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도 잘 지냅니다. 절대 한탄하지 않습니니다. 그렇게 알고서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 진짜 재미있습니니다. 악기 다루듯이 하는 것입니다. 감각입니다. 모든 것은 감각입니다. 운동도 감각이고 사람다루는 것도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약하게... 다 감각입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사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겁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차갑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회는 쉬운 것입니다.

글을 많이 읽으면 그 심정을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내가 책을 많이 봅니다. 예전 책들을 다시 보면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도 다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6~7년 동안 썼기 때문에 원고를 한꺼번에 다 못 봤습니다. 쓰는 대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정 많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를 방송으로 커버 할 것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해외에 있을 때도 전부 다 방송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못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해서 방법을 발달된 것으로 잡고 나가야 됩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을 시키려고 합니다. 욕도 얻어먹는 사람이 얻어먹어야 투덜대지 않습니다. 다른데서 욕 얻어먹으면 이게 뭐냐고 합니다. 십자가도 지는 사람이 지고 고통도 대신하고 ..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배우고 자꾸 해야 유능하게 됩니다. 무조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복적거리도 각자 개성으로 따지면 다 지도자들입니다.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계 50개국 나라가 기도를 해주니 내가 잘 못할까봐 부담이 됩니다. 기도 안 했던 사람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니 내가 일을 안 하면 잠을 못잡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짧게 자고 뛰고 달려야합니다.

목회는 쉽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면 됩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무조건 잘 해주면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왜 짐승으로 보라고 했는지를. 짐승은 잘 해주면 따르지 않습니까? 것처럼 사람도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너는 나이 먹고도 못하냐?’ 하는 사람은 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호랑이 훈련하는 사람들도 보면 계속 잘 해줍니다. 못해줄 때 묻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해주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 상하지 않게 잘 해줘야 합니다. 같이 의논하고, 밑의 사람 무시하지 말고, 잘해주면 목회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디 ‘내가 도와줄게.’ 하면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